

코리안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네트워크로

정 성 호*

그 동안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관한 논의는 이주 배경과 정체성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이주 과정에서의 적응, 동화, 정체성 등의 제 현상에 대한 연구는 좋은 예이다. 이러한 논의는 미주, 일본, 러시아, 중국 등에 이주한 한인들에 대한 실태 조사와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디아스포라는 더 이상 유랑자가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유용한 '자원'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한민족공동체로서 뿐만 아니라 해외 한인들을 포함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이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유대인 네트워크와 화교 네트워크의 특성을 검토한다. 이들은 전 세계 곳곳에 사람과 자본을 심어 놓은 이른바 현지화·세계화 전략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예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해외 한인들 묶을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해외 한인들 연결시켜 주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이야말로 21세기 무국경·무한경쟁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핵심단어: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유대인, 화교, 해외 한인

I. 머리말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용어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분산(分散) 또는 이산(離散)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개념은 원래 팔레스타인 밖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유대인의 종교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던 유대인 및 그들의 거주지를 의미하는 '이산 유대인'이나 '유대인 이산의 땅'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디아스포라는 민족 집단 성원들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분산한 동족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최근 디아스포라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의 경험뿐만 아니

*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shc@kangwon.ac.kr

라 다른 민족의 국제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민족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샤프란(Safran, 1991)은 디아스포라를 “국외로 추방된 소수 집단 공동체”라고 정의했다. 이와 비슷하게 톨리안(Tölölian, 1991)은 디아스포라를 “한 때 유대인,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의 분산을 가리켰지만 이제는 이주민, 국외로 추방된 난민, 초빙 노동자, 망명자 공동체, 소수 민족 공동체와 같은 용어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어원을 가진 의미”라고 확대 해석했다(윤인진, 2003). 이는 어떤 민족의 흩어짐, 정체성, 전통 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커뮤니티나 연대조직 같은 것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 기존의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속성을 제시한 최인범(Choi, 2003)의 논의도 주목할 만 하다. 즉, 1)기원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두 개 이상의 외국으로 분산한 것, 2)정치적, 경제적, 기타 압박 요인에 의하여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으로 모국을 떠난 것, 3)고유한 민족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 4)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족에 대해 애착과 연대감을 갖고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한 초국적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5)모국과의 유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등이다. 최인범의 논의는 기존의 디아스포라 개념을 보다 확대 해석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용어의 사용은 재외한인의 이주와 정착의 경험이 위의 조건들을 대체로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¹⁾ 재외한인의 경험을 디아스포라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들의 다양한 경험을 개별적인 사례로 보지 않고 일관된 분석틀을 가지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금까지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관한 논의는 이주 배경과 정체성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이주 과정에서의 적응, 동화, 정체성 등의 제 현상에 대한 연구는 좋은 예이다.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해외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미주, 일본, 러시아, 중국 등에 이주한 한인들에 대한 실태 조사와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디아스포라는 더 이상 유랑자가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유용한 ‘자원’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서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해

1) 최근에는 코리아스포라(Koriaspora)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논의도 있다. 이는 Korea와 diaspora가 결합된 신조어로 spora(씨를 뿌리다)보다 코리아 즉 한민족을 더 강조하는 어감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이미지가 유대인과 너무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한민족이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로 진출함과 동시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포괄하는 의미를 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김재기, 2008).

의 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한민족공동체로서 뿐만 아니라 해외 한인들을 포함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개념이 해외 한인이 거주하는 커뮤니티의 이익이라는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지구촌 전체에 흩어져 있는 한인 전체의 화합과 이익에까지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다.

사실 재외동포 혹은 재외한인을 뜻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벌써 700만 명을 돌파해 내국인의 14%에 이른다. 화교 사회가 3700만, 유대계가 580만 명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수는 놀랄 만 하다. 최근 들어 재외한인의 현지 사회에서의 영향력도 날로 커지고 있다. 그 동안 정부도 재외 한인을 네트워크화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올해로 7년째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를 비롯하여 세계한인회장단회의, 세계한민족정치인포럼, 한민족과학기술인대회 등은 한민족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글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해외한인의 이주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이미 잘 구축된 유대인 네트워크와 화교 네트워크의 특성을 검토한다. 이들은 전 세계 곳곳에 사람과 자본을 심어 놓은 이른바 현지화·세계화 전략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예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해외 한인을 묶을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해외 한인을 연결시켜 주는 코리안 네트워크의 구축이야말로 21세기 무국경·무한경쟁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II.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유형

1860년은 한민족의 해외이주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해부터 본격적인 해외이주의 기록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의 해외이주는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가는 농업이민, 외지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이민, 잃어버린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나아간 망명이민, 노동계약에 의하여 나아간 계약이민, 사업진작을 위하여 나아간 사업이민 혹은 투자이민 등 다양한 형태를 띠어 왔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유형은 시기에 따라서도 그 성격이 큰 차이를 보인다.

<표 1>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유형

	구디아스포라	신디아스포라
이주 시기	1860~1945년	1960년 이후
이주 지역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미국, 독일, 캐나다, 브라질
이주 유형	농업이민, 노동이민, 망명이민	가족이민, 투자이민

즉, 주로 한반도를 둘러싼 이웃나라들인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으로의 이주는 자유를 찾아 신천지를 개척하기 위해 미지의 땅을 가는 활력과 개척의 이민이 아닌 굶주림으로부터의 탈출과 강제노역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반해 1965년 이후에 간 신이주는 남북미, 유럽의 여러 국가들 등 주로 백인문화권으로의 이주로 민족의 활력과 가능성을 자랑하고 있다(정성호, 1998).²⁾

1. 구디아스포라

구디아스포라는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기의 해외 이주로 지역적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하며, 유형으로는 농업이민, 망명이민, 노동이민의 성격이 강하다. 농업이민은 1860년에 시작된 러시아로의 이주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 후 농사를 위한 한인의 이주는 꾸준히 증가했으면 특히 1860년 후반기에는 6,500명의 한인이 연해주로 이주하였으며, 그 후 연해주는 러시아 한인사회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다. 당시 한인의 이주가 많았던 것은 한반도에 큰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며, 러시아가 한인의 이주를 적극 장려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으로의 한인 이주도 농업이민에서 시작되었다. 1875년 봉금령이 해제되자 한인들은 해란강을 중심으로 한 용정, 훈춘, 연길 등을 개척하며 벼농사를 지었다. 이후 1907년에는 연길 지방에만 5만호 이상의 한인이 거주하였다.(이광규, 1996) 이들은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과 같이 역경을 헤치고 중국인의 심한 착취를 견디면서 한인사회의 기반을 닦았다.

망명이민은 일제의 탄압을 피하고 조국 광복을 위하여 러시아와 중국으로 이

2) 한민족이 이주 역사를 보다 세분화시킬 수도 있다. 즉 구디아스포라를 1860년대~1910년대 토지부족과 인구대비 농업 생산성 부족, 1860년대 기근은 농민들이 토지를 찾아 연해주, 만주 등지로 이동하게 된 시기와 1910년대~1945년 강제적 분산 시기로 나눈 경우이다. 신디아스포라의 경우도 1945년~1962년 미국 군인과 결혼한 여성, 전쟁고아 입양, 유학 등 미국으로 이주한 시기와 1962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난민적 성격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정책적이며 자발적인 이주가 이루어진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주한 경우를 말한다. 1905년 일사조약 이후 의병 선봉자들은 러시아로 대거 이주하였으며, 이범윤, 엄인섭, 안중근, 유인석, 홍범도 등은 좋은 예이다. 당시 러시아의 한인 사회는 조국의 광복을 위한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국으로의 망명이민은 일제 식민지시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혹자는 압서 두드러진 특징은 러시아에서와는 달리 민족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진서숙, 창동학교, 광성학교, 봉명학교 등 많은 학교들이 북간도에 설립되었으며, 서간도에 세워진 신흥무관학교 역시 이 시기에 세워졌다. 이후 중국 상해에는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등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으며, 독립군과 광복군의 활동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망명이민의 예는 중국 등 제 3국을 통하여 망명형식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의 경우도 해당되는데, 1910년에서 1918년 사이에 도미한 망명유학생은 541명에 이르렀다.(이광규, 1996) 이들 중 흥사단을 조직한 안창호, 스티븐슨을 암살한 전병운, 장인환, 청년군관학교 창설자인 박용만, 그리고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이승만, 서재필 등은 대표적인 망명 독립운동가들이다.

노동이민은 1902년 하와이 소재 설탕 재배자 협회의 비숍(Charles R. Bishop)이 한국을 방문하여 당시 한국 정부와 이민 계약을 체결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계약에 따라 1902년 12월에 97명의 이주자들을 하와이로 송출하였다. 이후 하와이 설탕 농장으로의 이민은 몇 차례 계속되다가 1905년 92명의 이주를 끝으로 중단되었는데, 1902~1905년 기간 중의 총 하와이 이주민의 수는 7,266명에 달하였다.(경제기획원, 1987)

1904년에는 일본인들이 서울에 대륙이민회사를 설립하고 하와이와 멕시코로 한국인 노무자를 송출하는 활동을 벌여 당시 1,033명의 한국인 노무자가 멕시코로 이주하였다.(흥사원·김사현, 1977)

1919년 3.1 운동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한인들의 이주 역시 노동이민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들은 일본에서 1년 내지 2년 동안 잠시 머물면서 돈을 벌어서 귀국하겠다는 임시체류자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대부분 대도시에서 단순노동에 종사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에는 일자리가 많았고 임금도 한국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일본으로의 이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다. 게다가 한번 일본에서 노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귀국한 후에도 다시 일본을 찾는 경우가 많았으며 체류하는 기간도 갈수록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주자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농사일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여도 단순노동, 육체노동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노동이민이 이주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다른 이주였다면, 태평양전쟁

기간 동안 군수산업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일본에 징발되어 온 한인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2. 신디아스포라

해방 이후 해외 이주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1962년 해외이주민법이 제정된 이후 이민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시기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960년대의 이주는 초청, 국제결혼, 입양 등 특수이민을 제외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남미 지역으로의 농업이민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미국이 새 이민법을 제정하여 종전의 유럽 중심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이민의 수용대상을 바꾸게 됨에 따라 미국으로의 이민이 급증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면서 남미로 향한 이주자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어 연고초청에 의한 이주민 수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남미 국가들의 농업 이민 규제조치들로 인해 이민자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미국으로의 이주는 꾸준히 증가하여 1971년~1980년 사이에 한인 이주자 수는 27만 2000명에 달했다(한국일보편, 1990).

1980년대에 들어서자 우리나라의 해외이주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즉, 종전까지는 고용, 국제수지 등의 측면에서 이민이 갖는 효과에 기본적인 목표를 두었으나, 80년대에는 장기적인 국력 신장 및 대외적인 협력기반의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해외이주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주 형태도 종래의 농업이민 중심에서 어업이주, 투자이주 등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특히 신이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미국으로의 이주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본 또는 중국으로의 이주와 달리 가족이민, 엘리트 이민의 성격이 강했다. 여기서 가족이민이란 가족이 일시에 이민을 가는 것을 뜻하며, 엘리트이민이란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이미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들, 말하자면 한국에서 중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민 간 것을 말한다. 이민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1981~1986년 사이에만 202,000명에 이르렀다.

또한 미국으로의 이주는 시기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1970년대에는 낯선 백인의 땅에 가서 이민의 첫 씨앗을 뿌린 10년의 세월이었고, 1980년대에는 성장의 시기라면, 1990년대에는 결실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사실상 3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오늘 미국 내 한인의 위치는 보다 튼튼해졌다. 예컨대, 연방 및 주 정부, 시정부에 중용 되는 한인의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각 분야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던 한인의 해외이주는 1986년을 정점(37,097명)으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감소 추세가 급격하여 1996년에는 12,949명으로 줄어들어 1970년 이후 2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였다. 해외로의 이주 감소에는 한 때 연간 35,000명씩 이주했던 미국에 근래 불과 7,000~8,000명만 이주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국가에도 70년대는 독일 파견 광산 근로자의 간호사들에 힘입어 2,000~3,000명씩 이민을 잤지만, 96년부터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남미, 호주, 뉴질랜드 지역으로의 이주도 극소수에 이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주 감소 추세는 이주 해당국들의 이민 억제정책으로 문호가 많이 좁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안정으로 해외 이주에 대한 수요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³⁾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해외이주에 대한 매력기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명퇴 바람과 과중한 사교육비,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등을 피해 한국을 떠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들은 고학력 인텔리층으로서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직장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증가와 장애에 대한 불안정, 과중한 사교육비와 환경오염, 그리고 그로인한 삶의 질 저하 등 때문에 해외이주를 모색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이민자가 점차 증가했으며, 그 가운데서도 취업이민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상 지역은 주로 미국과 캐나다이며 최근 들어 호주 지역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각광받기도 했다(정성호, 1998).

2007년 현재 외교부는 해외 한인의 수를 170개국에 7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수적으로 해외 이산민족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들고 있으며(중국, 이태리, 그리스, 이스라엘) 해외 한인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역사적으로 관계가 깊은 한반도 주변 4강국에 거주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제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한반도를 핵으로 하는 네트워크로 연결하는가 하는 점이다. 해외 한인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인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21세기 정보화와 세계화의 세계에서 그들은 '문화적 영토'이며, 한민족네트워크의 일원이라는 중요성을 갖는다.

3) 이민감소 추세와 함께 해외 한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이민'도 크게 주목할 만하다. 역이민 인구는 1980년 한해 1,049명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 1996년에는 그 6.5배인 6,824명이 되돌아 왔다. 특히 LA 흑인 폭동이 일어난 직후인 1992~93년 사이에는 1년간 8,700~8,800여명이 돌아와 역이민이 최고조에 달했다.

III. 유대인 네트워크와 화교 네트워크

오늘날과 같은 정보사회에서는 사회의 중요기능과 과정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조직화되고 있다. 이제 네트워크는 사회를 구성하는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였고, 네트워킹 논리의 확산은 생산, 경험, 권력, 문화 등 제반 과정을 통하여 사회운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들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카스텔, 2003). 사실상 21세기에는 정보화와 세계화가 결합되어 '네트워크 사회'라는 새로운 그물이 정보화의 물결을 타고 지구촌을 덮어가고 있다. 네트워크 사회가 글로벌 차원에서 빠르게 이루어져 가는 21세기에는 글로벌 웹(Global Web)의 네트워크를 가진 자가 경쟁력을 가지고 강해지며, 웹 네트워크 조직 내에 속하여 연결되어 있을 때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특성을 보인다. 이제 네트워킹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나 민족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어지는 새로운 물결로서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전략이다.

현재 세계는 민족국가의 집합체에서 네트워크의 집합체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가간의 경계가 퇴색하면서 오히려 민족적 정체성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즉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더욱 심화되면서 사람들의 정체성이 약화되자 문화적 정체성을 찾으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뿌리의식과 민족성이 더욱 중요시되었다. 이렇듯 세계가 민족국가에서 네트워크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유대인과 화교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적·민족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1. 유대인 네트워크의 특성과 위력

유대인을 가리켜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게 뭉친 민족”이라고 말한다.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대인은 한 장의 담요처럼 짜여져 있다. 이 ‘담요’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못한다. 이것을 유대인은 히브리 말로 ‘하베림 갓 이스라엘’이라고 말한다. 모든 유대인은 한 덩어리라는 뜻이다. 고대에서 오늘날까지 읽히고 있는 유대인의 고전에는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다”, “유대민족은 하나다. 뭉쳐야만 산다”, “그들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말들이 자주 되풀이 된다(우노 마사미, 1987). 이처럼 유대인은 유대라는 공동체 속의 한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유대인이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전승되어 왔다. 유대인이 한 가족이라는 말은 결코 꾸미거나 부풀려서 하는 말

이 아니다. 이와 같은 단단한 결합이 없었다면 유대인은 이미 아득한 옛날에 다른 민족과 문화에 동화되어 오늘날에는 역사책의 한 구석에 기록되는 것으로 끝장이 나고 말았을 것이다.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괴로움을 다른 각도에서 관찰해보면 그것은 내일への 투자라고 할 수도 있다. 국경이 없는 유대인은 오늘날 형성되고 있는 하나의 세계시민의 자격을 누구보다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중반 이스라엘 건국 후에도 유대민족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 미국, 이스라엘, 구소련, 프랑스, 영국 등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3/4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 흩어진 유대인은 그들이 정착한 나라에서도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유대인 수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도 인구의 3%에 지나지 않는다.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에 걸친 이산(離散)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에 있어 특이한 것은 첫째, 민족의 대다수가 역사적인 조국(historic homeland) 밖에서 살았으며 둘째, 이산의 형태도 한 때는 동유럽, 또 한 때는 이슬람 국가, 그리고 오늘날에는 미국 등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우노마사미, 1991). 이와 함께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는 어느 나라에 살든 유대인은 하나라는 뿌리 깊은 인식을 포함한다.

세계 속의 유대인 네트워크의 위력은 특히 경제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유대계 다국적 기업, 유대계 금융업, 유대계 곡물 메이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엿볼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의 개념은 유대민족이 망국의 백성, 무국적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던 이산·유랑의 역사 속에서 생겨났다. 1900년간 유대민족을 괴롭혔던 것은 박해·학살·추방 등의 세 가지였다. 어디를 가나 그 민족과 국가로부터 이 세 가지를 받아왔다. 항상 불안에 떨면서 국경을 넘어 세계를 유랑하던 유대인에게는 국가도 국경선의 개념도 없었다. 국경선이 없는 지구와 지구 밖의 상공에서 세계를 조망한다고 하는 발상이야말로 유대민족이 1900년간의 고난에서 얻은 것이었다. 이런 유대인들의 세계관으로부터 다국적기업의 발상이 떠오른 것이다. 세계를 모자이크로 보는 다국적기업의 발상과 그 형태는 선진 대기업이 주류를 구성하고 있으며, 유대계 사람들은 다국적기업의 경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유대계 미국인은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무국적 전략에 뛰어난 사람들이다.

유대민족은 오늘날에도 백 수십 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유대민족끼리는 국경을 넘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유대감은 유대민족에 있어서 당연한 사고방식이다. 유대인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끼리 항상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 미국계 유대인이든 소련계 유대인이든 동족인 것이다. 런던도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헬리 윌스톤이라는 다이아몬드 연마상은 전 세계의 유대인가 손잡고 장사를 하고 있으며, 스위스의 유대인을 뜻하는 스위처는 중립국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러시아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대인과의 연결고 있다.

이렇듯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유대인에게는 상대의 국적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대인이 유대인 아닌 사람과 거래를 할 때 일일이 독일인, 프랑스인이라고 상대를 가려서 부르지 않고 통틀어 이방인으로 취급해 버리는 것은 좋은 예이다. “만일 유대인들이 북반구에 분산 이주하지 않았다면 근재 자본주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문화사가 쾰바르트(W. Sombart)가 말했듯이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물과 같은 조직으로 지구를 감싸고 있는 세계의 다국적기업 중 절반이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그 가운데 상위그룹의 대다수가 미국 유대자본의 지배하에 있다. 국제 유대자본은 전 세계에 그 어떤 세력보다도 공고하고 치밀한 네트워크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세계 최대의 자금 조달과 운용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석유 가격을 좌우하는 오일 메이저도 유대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곡물시장도 유대자본이 장악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유대라는 공동체 속의 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그 어느 민족보다 강하며, 이러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결속력의 강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세계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국가에 같은 민족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이 서로 연락을 취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서로 돕고 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엄청난 힘을 가진 『이면에 숨어 있는 국가』라는 이름에 걸맞게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이며, 파워의 기초이다(정성호, 2003).

유대인 네트워크에 관한 논의에서 유대인의 상호돕기식 커뮤니티 활동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중 미국의 유대인 모금조직은 대표적인 것이다. “WE ARE DOING IT”. 이는 미국 내 유대인들의 작은 손들이 모아 해마다 벌여온 한 모금돕기단체의 모금 캠페인 구호다. 이 모금액의 규모는 1만 달러에서 50만 달러가 주를 이루고 있다. 5백만 달러가 넘는 거액기부도 흔하다. 이런 모금액 중 80%를 본국에 보낸다.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돕기도 하고 소수 민족을 돕기도 한다. 이런 모금단체를 포함한 각종 커뮤니티 조직만도 미국에 2백여 개가 넘는다. 요란하지 않고 조용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대인들은 모국인 이스라엘과 미국 두 나라 경제를 모두 살린다는 자세를 보인다.

교육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네트워크를 통한 결속력의 강화는 신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주이쉬 뉴스 다이제스트』는 전 세계의 유대인에게 가장 널리 읽히는 신문으로 주이쉬 텔레그라픽 에이전시라는 통신사에서 제공한 뉴스가 가장 많이 보도된다. 그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 뉴스, 세계 여러 곳의 유대인 소식, 전 세계의 반유대주의 등이다. 이것은 영국의 로이터, 미국의 UIP, 독일의 DPA, 프랑스의 AFP, 일본의 공통통신과 같은 민족적인 또는 국가적인 통신사와 맞먹는다.

이와 함께 유대인을 하나로 묶는 조직의 조직력과 파워도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미국 내 유대인 단체 본부인 전미유대인협회(NJCARC)는 국가조직과 흡사하며, 교육·과학·방위·사회 등 각 분야에 산하조직을 두고 있다. 이 조직은 미국 내 1,200개 도시에 산재해 있는 유대인 단체의 총본산으로, 각 지부 위에 30개의 상위 중간조직이 있다. 이 중 회원수가 100만 명이나 되는 5대 단체가 있다. 가장 큰 단체인 미국유대인 연합회(American Jewish Congress)를 비롯해 ATC, AZO, ADL, HADESSA가 바로 그것이다. 이 중 HADESSA는 여성단체로 회원수가 150만 명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단체의 하나이다(Hall, 1993).

이러한 유대인 조직은 유대인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하고 언어·역사·문화를

<표 2> 세계의 주요 유대인 단체

단체	소속 국가
American Jewish Congress American Jewish Committee American Zionist Organization HADESSA	미국
Canadian Jewish Congress United Israel Appeal Jewish Immigrant Aid Service Union for Traditional Judaism	캐나다
Board of Deputies of British Jews Central Council for Jewish Social Services	영국
Contemporary Jewish Documentation Center	프랑스
Netherlands Israelietish Kerkgenootschap	네덜란드
Union of Italian Jewish Communities	이탈리아
Executive Council of Australian Jewish Zionist Federation of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South African Zionist Federation	남아프리카공화국

전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 신문 발행이나 각종 문화행사 경비도 포함되며, 총 경비는 연 8억~10억 달러 정도이며 전액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바로 이 같은 조직적인 연대와 이를 매개로 한 사회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현지에서의 성공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유대인들의 성공에 특별한 비결이 있다기보다는 완벽한 조직과 이를 통한 공적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적응력을 기르는데 매우 뛰어났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2. 화교 네트워크의 특성

“바닷물 닿는 곳에 화교가 있다”, “연기 나는 곳에 화교가 있다”, “한 그로 야자나무 밑에는 3명의 화교가 있다” 등의 표현은 해외 중국인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인이 혈연·지연을 바탕으로 국경을 초월한 중국인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인들은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 상업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이질문화와의 원활한 접촉과 현지 적응에도 성공했다.

이 네트워크는 분권화되어 있고 범아시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가족지향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다. 이것이 다름아닌 화교들의 힘이자 이들이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13억 중국인 가운데 화교 및 그 친척은 수적으로 그리 많지 않으나 그 경제활동은 ASEAN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 및 선진 제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파워로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화교 네트워크의 구성은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출신지역별 또는 혈족별로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같은 화교권 내의 교류도 최근 들어 세계적 화교기구의 출범으로 활성화되어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1991년에 시작된 ‘세계화상대회’를 계기로 거미줄 같은 기존의 화교조직이 이제 세계적인 연결망을 갖추고 있다. 화교 네트워크는 그 어느 집단이나 세력보다 세계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감각이나 세계적인 조직면에서 가장 뛰어나다. 그 때문에 세계적 활동의 진정한 모델 구실을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국제경제는 기업간의 상거래와 개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좌우된다. 국가가 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기업이 교역을 하는 것으로, 네트워크는 새로운 국제경제체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화교의 활동은 네트워크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일종의 네트워크구조하고 할 수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기본 틀 안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전형,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화교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서로를 잘 아는 가운데 모든 일을 협동적으로 처리한다. 이들의 사업활동은 기이할 정도로 개별화되어 있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협력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위기에 직면하거나 대단한 호기를 맞았을 때는 끼리끼리 결속하고 협력한다. 홍콩의 어느 은행가가 지적한 것처럼 “중국인들의 사업공동체에서 존경받은 인사로서 인정받아 새로운 제후를 보증 받는다면 그것은 천만금보다 값진 것”이다.

또한 화교의 사업체는 자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기업체와 그 밖의 여러 사업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이다. 다시 이런 네트워크들이 서로 맞물린 채 짜여져서 전 세계적인 거대한 네트워크 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구조는 인터넷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터넷이 수많은 네트워크로 구성된 것처럼 화교들도 수만 개의 네트워크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강한 힘을 발휘하는 네트워크는 모두 예외 없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즉 그 시스템의 개개 구성체가 마치 네트워크의 중심처럼 기능한다는 점이다. 화교들은 세계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그들의 네트워크 속에서 각자 다른 사람들과 거래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중국의 속담에 “남을 위해 하는 일에는 전망이 없다”는 말이 있다. 모두가 중심에 놓이고 또 자신이 주인이기를 원한다. 이런 의식이 중국인의 모험심과 진취적 기업욕을 자극한다. 예컨대 싱가포르의 화교상공회의소는 세계 중국인 기업네트워크라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만들어 전 세계의 화교상공회의소를 연결하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스페이스를 연결하는 이런 하이테크 링크는 기업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중국인 간의 정보 유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화교 네트워크 조직 모델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교육열이 대단한 중국인들이 서구 세계에 있는 세계 유수의 대학에 자식들을 유학시키는 것이다. 이들 자녀는 MIT,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수학하면서 전 세계의 체계·정제 파워 엘리트들의 자녀들과 친분을 쌓는다. 화교들이 먼 훗날을 내다보고 자녀들을 유학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의의 상황에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또 하나의 유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정성호 2004).

화교는 그 어느 집단보다 글로벌 네트워크 결성에 적극적이다. 즉 세계적인 감각이나 세계적인 조직면에서 가장 뛰어나다. 그 때문에 세계적 활동의 진정한 모델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화교 자본은 서구세계에서 중요한 자금조달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화교 실업가는 서구세계의 경제활동에 더욱 깊숙이 손을 뻗치고 있으며, 세계 여러 지역에 바람직한 자금제 구실도

하고 있다.

화교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극히 유용하다. 화교 기업가는 국내사업의 50%, 국제사업의 40% 정도를 화교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서구 기업들과 화교 네트워크간의 유대도 주목할 만 하다. 서구기업들도 아시아에서의 사업 확대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역내 화교들과의 관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소매점 체인인 Wal-Mart사와 태국의 Charoen Pokphand(CP그룹) 합작으로 중국내 할인연쇄점 설립을 위한 합작사업을 들 수 있다. 서구 기업과 화교기업과의 합작 사업은 소비재생산뿐만 아니라 호텔, 금융, 정보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화교네트워크를 보다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은 국제화교협회, 세계화상대회, 아시아 화교네트워크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화교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화교협회는 1981년에 설립되었으며, 산하에 150여 개의 소규모 협회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 회의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으며, 그 동안 홍콩, 마카오, 캐나다, 프랑스, 필리핀, 태국 등지를 순회하면서 이루어져 왔다. 회합은 화교 간에 구축된 유대관계를 다시 강화시켜 주는 계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 오랜 기간동안 거주함으로써 소원해진 중국의 고향친척 및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복원시켜주는 계기를 제공했다.

세계화상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화상 네트워크이다. 이 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며 세계 각국에서 2,000여 명 이상의 화상들이 참석하는데 방언이나 선조의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화상들이 참석하고 있다. 세계화상대회는 화상 간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각종 행사가 열린다. 대회는 만다린어 또는 영어로 진행되는데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며, 화교 특유의 응집력을 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아시아 화교네트워크는 아시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화교들 대부분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중국인이란 역사의식을 통해 화교 간의 횡적인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네트워크 구축은 가족관계, 동일언어, 선조의 고향이 같다는 것 등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현지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피해 제3국으로 재이주 한 곳에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 세계 화상들은 「세계 화상네트워크(Business Network)」를 구축하였다. 세계 화상네트워크는 총 9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트워크의 개황, 전 세계 화교 총상회 조직, 각국별, 업종별, 화상기업주소, 연락처, 사업소개, 기업자료, 세계 각지 수출입중계 무역코너, 세계 각국 화상들의 인사동정과 인력은행 및 인력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가 중국어 간체자, 번체자나 영어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어 자료를 읽고 싶으면 PC에 중국어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면 된다. 또한 화상네트워크는 각국별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중국 본토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대만상공기업연합회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싱가포르 총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http://www.cbn.com.sg>). 최근에는 인터넷 토론그룹인 객가(客家) 글로벌 네트워크가 생겨나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화교파위의 핵심인 객가가문 문화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 페이지에는 객가의 해외 이주 역사, 유명한 객가계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활약상도 등장한다.

화교 네트워크에는 신뢰가 있다. 화교들의 네트워크가 강하고 믿을 만한 이유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그들의 문화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화교들은 그들만이 통하는 상관습이 있다.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위하여 단합하고 화상 기업들의 번창을 위하여 같은 분야에 과다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하는 문화가 있다. 규율을 어기는 화교는 철저히 그들의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네트워크 자체가 작은 민간 정부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8년 덩소평의 등장으로 화교 친화정책을 추진한 중국 정부는 1990년 세계화상총회를 조직하는 등 화교를 중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중국은 정부 부처 내에 장관급인 화교부를 설치하고 국회적인 전인대에도 화교 전담 상임위원까지 두어 화교를 보호 육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과 동남아시아에 집중한 화교의 기업과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심천, 주해, 하문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였다. 이른바 자기 고향에 투자시키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중국은 개혁 개방 이래 중국 본토에 대한 외국 투자의 약 70%가 화교 자본일 정도로 화교들의 중국 본토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6000만 화교와 13억의 중국 본토를 연결하는데 성공했다.

IV. 코리안 글로벌 네트워크의 현황 및 발전 방안

세계에 분산되어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세계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재외동포와 국내 구성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간에 문화적·경제적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재일 한국인 강상중 교수는 ‘코리안 네트워크’의 개념을 제안하면서, “역사의 부스러기로 취급받으면서 동북아에 흩어져 살아온 한인계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세기 열린 공동체’의 가능성을 열면서 어쩌면 한반도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역설한다. 물론 아직까지는 서로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고는 하기 힘들다. 하지만 미디어와 통신, 운송수단의 비약적인 발전은 이러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더욱 두텁게 해 나갈 것이다(최우길, 2008).

그 동안 재외한인에 대한 관심은 주로 한인사회 구조 및 구성 한인사회 당면 문제, 인권문제와 법적문제, 이주사 및 이민생활사, 언어 및 교육관련 문제 등 사회현상과 한인관련 현안에 초점이 주어졌다. 이러한 관심을 통해 한민족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민족정체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가 등의 문제를 밝히는 데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재외동포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재외동포와 국내 구성원의 네트워크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인터넷을 매개로 전 세계 한인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한민족네트워크는 재외한인 상공인을 연결하는 한상네트워크, 세계해외한인무역인네트워크,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등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표 3〉 참조). 이제 한민족네트워크 안에서 재외동포사회 간 정보검색과 연계, 결연, 상호지원체

<표 3> 한민족네트워크의 종류

종 류	특 성	담당기관
코리안넷	on-line	재외동포재단
한상넷	on-line & off-line	재외동포재단
세계한상대회	off-line	재외동포재단, 매일경제
세계해외한인무역인네트워크	off-line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세계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	off-line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한민족경제공동체세계대표자회의	off-line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	off-line	세계한상총연합회
소상공인네트워크	on-line & off-line	두레21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on-line & off-line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세계한민족IT네트워크	off-line	KANE, KAPS... 등 다수
한인글로벌벤처네트워크	off-line	벤처기업협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off-line	여성부

계 구축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이 필요하다.

1. 한상네트워크

한상네트워크는 전 세계의 한민족 경제인을 조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국과 재외동포 경제인, 또 재외동포 경제인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하도록 하고 한민족의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동시에 국경을 초월하여 연계를 맺고 무역과 금융거래를 하는 한민족 간의 경제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여기서 한상(韓商)이란 세계 각지에서 제조업, 상업 및 무역, IT 및 벤처, 금융, 과학기술, 법조 및 언론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민족 경제인을 총칭하는 말이다(2006, 김재기). 한상네트워크는 사어버 한상시스템을 완성하여 재외동포에게는 비즈니스 기회를 더욱 많이 창출하는데 그리고 모국 기업에게는 해외마케팅 채널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재외동포 경제단체 통합 사이트인 한상NET와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재외동포 기업인 DB를 구축한 한상BIZ를 국내 기업인 DB와 연계하여 상거래를 활성화 시켜주는 포털사이트 구축은 좋은 예이다.

한상네트워크는 지속적인 세계한상대회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재외동포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과 국내외 동포들 사이의 상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한민족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600만 재외동포 경제인들을 국가적 자산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전 세계 한민족 경제인들의 모임이다. 해외에서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 활동을 하는 동포 기업인을 비롯해 각계의 전문가,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경영인들이 대규모로 참가한다.

주요 행사로는 첫째, 리딩 CEO포럼을 들 수 있다. 이 포럼에는 세계적인 동포 경제인들과 다국적기업의 주요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동포 기업인들이 참석한다. 둘째, 차세대 경제 리더 포럼에서는 40대 미만의 젊은 동포 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해 한상 네트워크 구축과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활용방안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한다. 셋째, 금융·유통·신기술·패션·생활 등 산업 분야별 비즈니스 포럼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업계의 최근 동향과 이슈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의가 이루어진다.

그밖에 재외동포와 국내 기업 사이의 1 대 1 비즈니스 미팅, 동포 경제인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전시회, 외국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별 투자환경 설명회, 지방자치단체의 투자환경 설명회, 비즈니스 특강

등이 열린다. 또 이 대회를 전후해 벤처코리아대회(KOVA대회)·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한국전자전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됨으로써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세계해외한인무역인네트워크(WORLD-OKTA)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 Federation of Overseas Koreans Traders Association)는 세계 각국 한인 무역상 조직으로 결성되었으며, 모국과의 긴밀한 유대강화를 기하고 산업정보 및 회원 상호 간에 이익증진과 협조를 강화하며, 지구촌 해외한인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바이어 상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모국과 연계한 무역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협회는 현재 60개국 100여 개 도시별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대도시별로 조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동남아,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은 국가단위 조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협회는 네트워크 사업으로 국내 거래선을 발굴하고, 해외시장의 마케팅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입 알선 및 합작투자사업, 코리안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동포단체, 기관, 업소 DB 구축사업을 하고 있다(김재기, 2006).

세계해외한인무역인네트워크는 매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8년 10월에 개최되는 제13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한민족 경제네트워크 구축과 모국경제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 교포 경제인의 상호교류 확대, 참가자 간의 교역수주 및 상담추진, 투자/교역을 통한 한국 및 상호 거주지역 경제발전 기여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세계해외한인무역인협회는 글로벌 한인네트워크 중 가장 응집력이 강하고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매년 국내외 3,0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한상대회의 핵심적인 조직도 이 협회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현재 6,000 명의 회원 중 핵심회원 500 명의 구매력은 10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김재기, 2008)

3.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www.kosen21.org)는 1999년 온라인에서 시작돼 현재 40개국 5만여 명의 과학기술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우수한 해

의 인력을 연결해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네트워크에는 한국인 최초의 하버드대 종신교수로 노벨상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박흥근 교수를 비롯해 과학 저술가로 유명한 미국 프린스턴대의 전창훈 박사, 국내 화학계의 스타 과학자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상엽 교수, 재미과학기술자협회장을 지낸 미국 UCLA의 한홍택 교수, 이조원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장이 회원이다. 또한 LG전자, 포스코, 하버드대, 엠디앤더슨암연구소, 미국립보건원(NIH) 등 국내외 유명 기업이나 기관에 있는 100여명의 연구원들이 코센 지정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해외 회원 가운데 50%는 박사급이며, 이들이 전문적인 자료와 논문 등을 분석해 올리는 지식정보는 이 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이 하나이다.

KOSEN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의 사이버 휴먼네트워킹으로서 이미 과학기술자들 사이에서 세계 곳곳의 다양한 정보를 가장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창구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KOSEN은 회원들끼리 해외출장이나 유학생활이 노하우를 교환하거나 아르바이트나 취업정보 등 정형적인 보고서나 논문에서 얻을 수 없는 살아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사실 KOSEN은 과학기술 분야에 새바람을 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 수만 명의 한국 과학자들이 가진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연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혁신적인 시도이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과학기술자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정보를 결집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모델이다.

KOSEN이 가진 최대의 힘은 한국의 특이한 인터넷 커뮤니티 문화에서 나오는 '속도'이다. 연구 중 어려움에 부딪힌 과학자나 학생들이 코센의 '왓 이즈'(What is) 코너에 도움을 청하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거의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웬만한 논문은 요청만 하면 당일 바로 받아볼 수 있다. 이 같은 신속성은 다른 나라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회원들의 평이다. 코센 전문가들이 만들어 내는 연간 550편의 분석보고서도 산업계와 학계로부터 큰 인기다. 삼성과 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코센의 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은 국경을 넘어 필요한 기술 정보를 얼마나 빨리 찾아낼 수 있느냐가 연구개발의 주요 경쟁력이 돼 가고 있는 시대라는 점에서 코센은 한국만이 가진 특유 모델로 앞으로 전 세계 과학기술 분야의 새 흐름을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 한민족네트워크의 특성과 발전방안

위에서 살펴본 네트워크 외에도 세계한인상공인연합, 소상공인네트워크(두레 21), 세계한민족 IT 네트워크(KIN), 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INKE),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한민족무역거래망, 코글로 등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움직임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네트워크가 추진되고 있지만 경제 분야의 한상네트워크와 과학기술 분야의 코센이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운영하는 한상네트워크의 경우 한상넷(www.hansang.net)이나 코리안넷(www.korean.net)은 부실한 콘텐츠로 지적을 많이 받았지만, 오프라인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는 갈수록 힘을 받고 있다. 2002년 제1차 대회에서는 28개국 968명이 참가해 3,000만 달러의 상담에 그쳤으나, 2006년 5차 대회 때는 39개국 2,285명의 기업인이 참가해 3억 5,80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계약금액은 1,192만 달러)을 기록했다. 그리고 2007년 6차 대회에는 37개국 2,933명의 기업인이 참여하였으며, 그 계약실적도 6,300만 달러에 달했다. 코센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에 있는 한민족 과학자들을 네트워크화 하여 연구정보 교류, 지식정보 생성, 첨단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한인 과학기술자간의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예컨대 코센을 통한 정보교류는 2003년 1,929건에서 지난 해 52,620건으로 증가하여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민족네트워크는 대부분 한국정부 부처 및 관련 단체와의 밀접한 관계 및 재정적 지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현재 재외동포와 관련된 정부 부처가 20여 개가 넘고, 각각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한민족네트워크가 분야별로 관련 부처의 지원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리하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할 필요는 없다.⁴⁾ 그러나 이를 총괄적으로 통합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세계 한민족네트워크는 각 분야 간의 네트워크가 국내외 한민족을 종횡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너지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김재기, 2006). 그 동안 네트워크 상호 간의 단절은 한민족네트워크를 결성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어 왔으며, 네트워크의 내용이 중첩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또한 사업의 중복으로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재외동포 교

4)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각 부처가 통일된 방침이나 상호 협력 없이 제각기 자기 부처와 관련된 영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게 되는 경우 효율성이 낮아질 우려와 함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큰 틀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류의 문제점으로는 온라인 교류사이트 구성원 참여 부족, 재외동포 2·3세대 대상 교류·문화 및 한글 보급 등 투자 미흡, 재외동포 인재 국내영입 및 통계 구축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 발표된 『재외동포 교류 협력사업 실태 평가』에 따르면 그 동안 재외동포 교류협력사업이 국가경쟁력 강화, 민족공동체 구축 등 추상적인 목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단계별, 연도별 계획이 설정되지 않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의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국정과제를 실천한다는 공급자 관점에서 추진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 정책 심의 조정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부처간 통합·조정 기능이 취약하다는 평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

재외동포재단의 예산과 규모가 적정치에 훨씬 못 미쳐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 금융, 법률, 의료, 농업 등 직능별 재외동포 교류협력 사업은 아직 기본적 네트워크도 구축되지 않고 있으며, KOREAN NET과 같은 온라인 교류사이트도 운영자 위주로 구성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한민족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적 전략이 비전 없이 일회성, 전시성 행사에 치중해 왔다. 이제 더 이상 큰 그림만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며, 네트워크 구축의 목표와 방식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재외동포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조직과 예산을 확충하고, 각 부처의 재외동포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전략적 통합과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표명하였다.⁶⁾

이와 함께 재외동포 단체가 기반조직과 국가별·지역별 네트워크를 주도하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 등

5) 재외동포정책이 통합성을 높이고 정책 조정을 위해 설립된 이 회의체가 제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위원회에 집행기능을 부여하는 등 결정사항을 강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 사무국이나 사무처를 두어 중국의 화교교부위원회와 같은 실무조직 형태를 갖추도록 하고, 정책조정기능 및 집행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지속하는 경우 집행이나 권한의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최우길, 2008).

6) 구체적으로 증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발전전략 마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기능 제고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외동포재단의 인력을 내년까지 66명으로 증원하고 예산을 10~15% 정도 확충하는 한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범정부적 연간계획 및 사업의 조정·통합 기능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이 계획은 단계별·연차별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수록한 '재외동포 교류·협력 기본계획'을 마련해 각 부처별 중복사업을 전략적으로 통합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기본 계획 및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접적 지원을 하는 등 역할 분담에 관한 내용도 주목할 만 하다. 주요 네트워크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네트워크 현황 및 경제관련 정보를 종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동포 관련 사이트의 연계·통합을 추진하는 등의 계획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⁷⁾

한민족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업은 재외동포 정책의 큰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정권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이 영향을 받는다면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은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V. 맺음말

최근 무서운 속도로 도약하는 중국경제는 해외화교의 네트워크와 자본력에 크게 힘입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화교를 중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화교 유치정책을 추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가운데 2/3 이상을 화교자본으로 충당하였다. 중국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입지를 구축한 인도계 전문 인력과 기업인들이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스라엘도 해외교포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번영을 꾀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해외 이주 인력과 모국 사이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특히 글로벌 차원에서 구축된 이들의 네트워크는 21세기에 들어 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민족네트워크의 구축은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새로운 물결로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전략으로 등장하고 있다.

코리안 글로벌 네트워크의 목적은 전 세계 거주 한민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모국과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러한 구상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한민족의

7) 최근 발행된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의 '세계한상문화 연구 제3차 총서'는 재외한인의 네트워크 실태를 다양한 분야에서 세밀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한민족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재미한인 기업의 네트워크, 재일코리아 기업의 네트워크, 중국조선족 기업의 네트워크, 러시아·중앙아시아 한상네트워크, 재외한인 민족교육 모형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재외한인 권익보호 단체와 활동가 네트워크, 재외한인 언론인 네트워크, 재외한인 여성공동체 네트워크, 재외한인 정보자원 생성과 변천, 재외한인 사회단체 네트워크, 재외한인 문화예술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체성 및 동질성 유지를 지원하는 목적도 있다. 이 네트워크는 모국과 동포사회의 쌍방향 네트워크 형성을 지향하며, 재외동포 2,3,4세를 위한 다국어 지원 등 실질적인 한민족 교류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코리안 글로벌 네트워크는 실사구시적이어야 한다. 개념으로만 끝나서도 안 될 것이며 행사 위주로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야말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한민족의 정체성을 토대로 하나로 묶어 서로 도와서 상호 간에 경제적 이익이 되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불필요한 국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로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같은 민족정체성으로 맺어지는 네트워크는 신뢰를 형성하기 쉽고, 재외동포가 서로 믿고 도와야 네트워크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고 공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다. 코리안 글로벌 네트워크의 개념을 단순 교역 차원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각도로 교류 가능한 채널로 발전시키기 않고서는 명실상부한 코리안 네트워크 형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또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재외동포들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도 코리안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들이 재외동포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심과 지원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재외동포정책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정부는 '한민족의 이산(離散)'은 바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며, 이를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새 시대를 여는 열쇠라는 점, 세계화 시대에 재외동포는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점을 들어 국민들에게 재외동포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이해시켜야 한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해외교포-국내 민간기업-정부'로 이어지는 21세기 세계화 전략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틀을 세밀하게 짜고 치밀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시도야말로 21세기 무국경, 무한경쟁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필수적이고도 효율적인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경제기획원 (1987) 《해외이주편람》

김재기 (2006) 《세계화 시대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와 국가발전》 한국학술정보.

- _____ (2008) “코리아스포라와 모국관계의 정치경제: state-linked diaspora 관점에서”, 하계정치학회발표논문.
- 우노마사미 (1987) 《유태인을 알면 세계를 알 수 있다》 서인석(역) 원음사.
- _____ (2003) 《유태인의 세계 경제전략》 김흥기(역) 교문사.
- 윤인진 (2003)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국사회학》 37(4) 한국사회학회..
- _____ (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 이광규 (1996) “세계의 한민족: 총관” 《세계한민족총서 I》 통일원.
- 정성호 (1998) “해외한인의 지역별 특성” 《한국인구학》 21(1) 한국인구학회.
- _____ (2004) 《화교》 살림출판사.
- _____ (2003) 《유대인》 살림출판사.
- 최우길 (2008) “이명박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과제” 하계정치학회발표논문.
- 카스텔 (2003)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김묵한·박행웅·오은주(역) 한울.
- 한국일보편 (1990) 《지구촌 한민족: 유이민의 어제와 오늘》 한국일보사.
- 홍사원·김사현 “한국해외이민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조사보고서》 제 79-07권.
- American Jewish Committee (1995, 1996) *American Jewish Yearbook*.
- Safran, Willian (1991)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s* 1(1): 83-99.
- Tölölian, Khachig (1991) “The Nation State and Its Others: In Lieu of a Preface” *Diasporas* 1(1): 3-7.
- Choi, Inbom, (2003) “Korean Diaspora in the Making: Its Current Status and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pp.9-27 in Fred Bergsten & Inbom Choi (eds). *The Korean Diaspora in the World Economy*,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es.

[2008. 8. 28 접수 | 2008. 11. 25 채택]

Korean Diaspora: From Overseas Compatriots to Network

Sungho Chung

The study of Korean diaspora has focused on migration, adaptation, and identity of overseas Koreans in China, the CI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contemporary concept of a diaspora is a way of understanding migration, cultural difference, identity politics, and so on. Thus, this more broadly defined diaspora is used to mean a dispersion of people of a common national origin or of common beliefs living in exile. As of 2007,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about 7 million Koreans living in 170 countries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Some have left Korea involuntarily and some others voluntarily. But most of them actively try to maintain their identity and culture as Koreans. With the large number of overseas Koreans, there has recently been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networking among overseas Koreans in the 21st centu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Korean Global Network of overseas Koreans. In doing so, this paper reviewed the case of Jewish and Chinese network. Then, this paper indicates the problems in the networking of overseas Koreans and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Global Network. Above all, there should be changes in the government's policy towards overseas Koreans in the direction of organizing networks of overseas Koreans to coexist with the mother country. The government should adopt a policy to restore trust in overseas Koreans. It should take a pragmatic approach to the mutual interests in the socioeconomic relations instead of taking a political approach to overseas Koreans.

Key Words: diaspora, overseas Koreans, identity, network